

치 사

봄소식으로 오는 생명의 푸른 기운으로 중앙승가대학교 제6대 총장 원행스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더불어 교육불사의 원력에 뜻을 더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하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승가대학교는 해안을 갖추신 선대의 스님들이 천년이 넘는 불가의 전통을 계승하며 대중의 원력과 삼보의 정재를 헌신적으로 모아 설립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람과 사회에 공헌할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취지와 같이 학교는 불교의 미래이자 시대와 사회에 마주한 우리 종단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뜻 깊은 도량에 정법대중의 발원이 모여 원력과 정진력이 남다른 스님을 총장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중요한 소임을 소신으로 일관하였고, 동문으로는 첫 총장이기에 동문은 물론 사부대중의 관심과 여망은 어느때보다 특별합니다.

스스로 부담과 책임감을 걱정하시지만 승가의 지도자로서 종단 내외의 충분한 경험과 원력을 두루 갖추었기에 스님의 겸손은 학교의 발전과 종도에 부응하는 든든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러 구성원들의 의견을 유연하게 수렴하고 어려운 일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가면서 앞서간 스님들의 열의를 수승하게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 사회는 높은 학력과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하기에 막연하게 정신의 삶을 강조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학문적으로 뚜렷한 성취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동안 학교가 이룬 많은 연구의 결실과 불교학의 발전은 지역 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종도들의 자긍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총장 취임을 맞아 새로운 도전이 이루어지고 후학의 첫 걸음을 훌륭하게 안내하면서 교육불사의 성취가 종단과 사회에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는 곧 인류를 선도하고 대승적 지도자를 배출하는 불가제일의 도량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입학하는 스님들은 물론이고 2014년 학사 일정이 훌륭한 총장스님을 모시고 시작하는 것이 학인 여러분에게도 큰 행운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이 도량의 실제 주인이기에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정진의 연속에 언제나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임자는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맡은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총장스님의 원력을 함께 하는 것이며, 종단을 위하고 한국불교를 위한 백년불사의 커다란 공덕을 이루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종단 또한 성심성의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승가대학교가 인류의 행복을 실현하겠다는 구도열의가 즐거움으로 넘치고 정신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훌륭한 교육 도량으로 거듭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8(2014)년 3월 3일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